

40개국 청년들, 케이(K)-지식재산 교육으로 스타트업 꿈 키워요

- 특허청, '2024 한-WIPO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' 교육과정 운영(8.5~16) -

특허청(청장 김완기)은 8. 5.(월)~16.(금)까지 온라인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(대전 유성구)에서 전 세계 청년들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해 '2024 한-WIPO*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(Summer School on Start-up)'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
* WIPO: 세계지식재산기구(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)

본 과정은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와 협력하여 '08년부터 개설·운영해 온 과정으로, 전 세계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'23년까지 120여 개국에서 611명이 수강하며 국가 간 지식재산 격차 해소에 기여해 왔다.

올해 교육과정은 아시아, 아프리카, 남아메리카, 유럽 등 총 40개국에서 지원한 123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. 1주차(8.5~9)에는 온라인(ZOOM)으로 기초교육이 진행되며, 2주차(8.12~16)에는 참가자 중 한국에 거주 중인 20여 명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지식재산 검색과 참여형 토론 등 실습 위주의 오프라인 수업을 받게 된다.

올해 교육과정은 '스타트업과 지식재산(IP)'이라는 주제로 ▲창업초기기업(스타트업)의 지식재산(IP) 포트폴리오 작성 ▲지식재산(IP)을 활용한 창업초기기업(스타트업)의 펀딩 ▲상표(브랜드) 가치 창출과 보호 전략 등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재산 지식과 일반적인 지식재산(IP)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.

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“이번 교육과정이 전 세계 청년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창업과 혁신 활동에서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”이라며 “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※ 붙임: '2024 한-WIPO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과정' 현수막 및 운영 개요

담당 부서	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교육과	책임자	과 장	이현동 (042-601-4350)
		담당자	주무관	김명준 (042-601-4313)



□ 교육과정 배경 및 목적

- (배경) 전 세계 대학생 ·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지재권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신탁기금*을 활용, '08년부터 매년 추진

* 한국신탁기금(KTF): 국가간 IP 격차를 해소하고, WIPO내 한국의 영향력 확대 및 외교력 증진을 위해 '04년 설치한 국제기금

- (목적)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기초이론 강의와 실습 및 토론수업 등을 통해 참가 교육생들의 지재권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도 제고

□ 과정 주요내용

- 과정명 : 2024 한-WIPO Summer School on Start-up

- 일시/장소 : 24. 8. 5(월) ~ 8. 16(금), 연수원 303호 및 국제회의장

※ 8월 둘째주 온라인 강의 진행 후 셋째주는 연수원에서 대면방식으로 강의 진행

- 참가규모 : 123명(오프라인 교육 참가자 20명)

- 주요내용

- 스타트업의 IP 포트폴리오 작성 기법
- IP를 활용한 스타트업의 펀딩
- 브랜드 가치 창출과 보호 전략 등